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요한 8, 11).

목 차

- 2 여는 글 - 문희중 신부 / 일러두기
- 3 사순 제1주간 - 유혹과 죄
- 7 판공문제 I
- 9 사순 제2주간 - 고통과 회개
- 12 판공문제 II
- 14 사순 제3주간 - 보속과 자선
- 16 판공문제 III
- 18 사순 제4주간 - 화해와 용서
- 20 판공문제 IV
- 22 사순 제5주간 - 파스카
- 26 판공문제 V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요한 8, 11).

교회는 예수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6주간(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사순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재의 수요일에 단식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통해 사순시기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 19 참조)라는 양식문은,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나아가 사순시기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례의 갱신과 준비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와 보속(기도와 자선)의 생활로 ‘파스카’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의 주일복음과 독서 역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제1주일은 ‘예수의 유혹’에 관한 복음을 통해, 유혹을 경계하고 죄를 피할 것을 권고하며, 제2주일은 ‘예수의 영광스런 변모’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할 때 맛보는 새 삶의 기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3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를 드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보속과 자선)를 요청하십니다. 제4주일은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화해와 용서를, 제5주일에는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선포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판공문제지는 각 주일 복음을 중심에 두고 《유혹과 죄-고통과 회개-보속과 자선-화해와 용서-파스카》로 꾸몄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사순시기의 정점인 제5주일 복음에서 ‘새로운 파스카’를 보게 됩니다. 죽을 운명에 놓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요한 8, 11) 하신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 자체로 ‘죄에서 용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파스카”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파스카의 체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자비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의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있을 때 더 풍성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사순시기 동안 미처 고치지 못한 악습이 남았다면 겸손되이 주님께 봉헌합시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용서를 청해봅시다.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듯 용기 내어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수원교구 모든 가정이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며 더욱 행복에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글 / 교구 복음화국장 문희중 신부

일러두기

1. 이번 사순판공문제지는 총5개 주제로 꾸며져 있고, 매주 판공문제는 10문항씩(총 50문항)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제시된 관련 글을 읽고 해당 문제를 풀어갑시다.
2. 본 문제지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가톨릭 대사전』 권1~12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부(031-244-5035)로 문의 바랍니다.
3. 판공문제지와 함께 <사순묵상·실천달력>이 배부 되었습니다. 이 달력은 사순시기 요일별 복음구절과 그에 따른 묵상성구가 전례력에 따라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고, 함께 모여 복음을 읽고 실천사항을 정해봅시다.

사순 제1주간

유혹과 죄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루카 4, 12)

교회전례는 사순시기 첫 번째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의 유혹사화’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를 묵상케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몸소 악(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혹을 이겨내심으로써 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지만, 후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유혹을 경계’하고 ‘죄를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 편집자 주 -

1 유혹

우리말에서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유혹’이라는 용어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기초해 ‘시험’·‘시련’·‘떠보다’ 등으로 폭넓게 해석된다.

◆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의 시험

구약성서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시험은 종종 고통이나 역경을 동반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단련·정화시킨다는 긍정의 목적을 가진다.

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험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에덴동산 이야기’(창세 2, 4L-3, 24)에서부터 이 주제가 부각된다. 동산 한 가운데 세워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첫 시험에 직면한다. 그러나 원조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느님과 똑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

②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고, 이사악을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이른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창세 22, 1) 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축복과 약속을 거둬 받게 된다(창세 22, 2-18). 이로써 하느님께서 인간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시험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내리는 풍성한 축복과 생명이 예시된다.



사순 제1주간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루카 4, 12)

③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여정

구약의 탈출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여정도,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네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를 시험하신 것이다”(탈출 16, 4 : 20, 20 : 신명 8, 2, 16-17).

◆ 신약성경에서 하느님의 시험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과 달리 하느님이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주체로 직접 등장하지 않고, 사탄 또는 악마가 유혹하는 자로 폭로된다(루카 4, 1-13 ; 마태 4, 3 ; 1코린 7, 5).

① 예수님의 광야유혹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신다(마태 4, 1-11 ; 마르 1, 12-13; 루카 4, 1-13). 그러나 이 사건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기에 본질적으로 하느님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성찰한 신명기 구절(8, 3 ; 6, 13)을 인용하시며 사탄의 광야유혹을 극복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유혹을 받으신다.



② 그리스도인들의 유혹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종말 때까지 숭한 시험에 직면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자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베드 5, 8 ; 2코린 2, 11). 여기에는 “그분은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히브 2, 18)는 강한 믿음이 요구된다. 그리고 끝까지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낸 이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루카 22, 28).

유혹은 죄인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다. 다만 유혹 속에 선한 것처럼 보이는 ‘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 성경에서 보듯, 유혹 또는 시험은 유한한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필연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삶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 유혹을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의존을 알게 되며, 은총에 열린 자세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성숙하게 된다.

2 죄

성경적 의미에서 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며, 하느님께 돌아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

◆ 죄의 기원

창세기 3장에서 소개되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야기는 죄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바오로 사도는 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담의 최초의 죄가 모든 죄의 기원이 됨을 강하게 암시하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로마 5, 19).

◆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죄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도 불열을 일으킨다(창세 4, 8, 24 참조). 이러한 일련의 악한 결과들은 더 큰 죄책과 고통을 가져왔고, 그 벌로 죽음이 초래된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의 회개와 용서가 선포되며,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로마 5, 20-21).

◆ 죄의 원인

성경에는 하느님이 마치 죄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된 내용들이 더러 있으나, 하느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반면 악마는 분명 죄의 원인으로 역할한다. 성경은 악마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악마는 실재(實在)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악마 역시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다만 인간의 내부적 감각에 작용하여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관심을 부정한 기쁨에 두게 함으로써 인간을 죄로 유혹할 수 있을 뿐이다.

◆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 죄는 우선 ‘원죄’와 ‘본죄’로 구분된다.





사순 제 2 주간

고통과 회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루카 9, 36)

사순 제2주일 복음과 독서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스런 변모’를 소개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과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자신의 악습에 죽음으로써,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편집자 주 -

8.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로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이다.

두 번째 □□는 일상적 의미의 죄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간 스스로 범한 악행을 말한다. 두 번째 죄는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하느님의 법을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동의를 갖고 고의로 어기는 죄를 □□라 한다. 중대한 문제에 관한 하느님의 법을 완전한 지식 없이 불완전한 동의로 어기는 죄를 □□라 한다.

보기 : 대죄, 본죄, 소죄, 원죄

9~10. 칠죄종(七罪宗)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 | | | |
|-----|--------|-------------------------------------------------------------------------------------------|
| 9. | ① 교만 ● | ● 성적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로서, 합법적인 혼인 외에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무질서 |
| | ② 인색 ● | ● 자신의 인격에 대한 높임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난 자로 자처하며 무질서하게 행동하면서 명예·직위·명성 등에서 어떤 특수한 우월성을 탐하는 것 |
| | ③ 음욕 ● | ● 음식이나 술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로서, 이성의 판단이나 윤리적 자유를 상실하게 하여 인간의 품위를 하락시키는 것 |
| 10. | ④ 탐욕 ● | ● 타인을 벌하고자 하는 무질서로서, 욕구와 함께 싫어하는 감정을 무절제하게 터뜨리는 것 |
| | ⑤ 질투 ● | ●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욕구로서, 정당한 이유나 목적 없이 세상 물질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가지는 것 |
| | ⑥ 분노 ● | ● 육체적·영성적 수고에 대한 염증으로서 근면, 하느님께 대한 효성과 사랑의 덕에 반대되는 것 |
| | ⑦ 나태 ● | ● 다른 사람의 선에 대한 비관이나 비난으로서, 다른 사람의 선을 마치 자기의 악처럼 받아들이는 것 |

3 고통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근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고통의 원인을 악의 체험, 곧 선의 결핍 때문이라고 보았다.

◆ 구약성경의 고통 이해

① 고통의 최종 원인을 인간의 원죄와 연결시키는 견해(창세기)

여기에서 비롯된 이해는, 하느님 가까이 있을 때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보였을 일들이 하느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비(非)구원으로 체험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삶의 테두리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 세계와 더 이상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② 고통을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표현들.

여기에서 비롯된 해석은, 죄에 대한 윤리적 상응은 벌이요, 벌은 ‘상선벌악’ 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드러낸다(시편 7, 15-16; 출애 7-11장).

③ 고통이 주는 교육적 가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듣게 되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따라서 신앙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과 관계를 가진다면 고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련으로 간주될 수 있다(창세 22: 옴 1, 11).



“너희는 그의 땅을 두어라” (루카 9, 36)

④ 의인이 겪게 되는 고통

욥기에서,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어버린 욥은 잣더미 위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부스럼이 난 몸을 긁으면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 그러나 욥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선다. 즉 무죄한 사람의 고통은 인간의 지력으로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는 하나의 ‘신비’로서 제시된다.

⑤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이사 40-55장)

여기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종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다.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도 직결된다.

◆ 신약성경의 고통 이해

① 행복선언(마태 5, 3-1)

복음서는 현세 생활에서 갖가지 고통으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슬퍼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일컫는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고, 괴로운 이들을 위로해주셨다. 나아가 예수님은 소경으로 태어난 이의 죄 탓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 3).

②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하나님인 동시에 강생하신 인간 예수님께서도 몸소 고통을 받으셨다. 그분은 다가올 수난 때문에 변민하셨으나, 십자가상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부정적 의미를 넘어선다. 즉 ‘고통’은 인류 구원 위한 도구이자,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는 신앙의 빛으로 이해된다.

◆ 오늘날 고통의 문제

고통은 일차적으로 인간 상호 의존성의 장소이자 연대성의 장소인 ‘세상’ 안에 있다. 세상은 모든 인간의 ‘삶’이 함께 얽혀 있는 장소로서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은 끝없는 ‘관계’의 틀 안으로 인간을 묶어 놓는다. 따라서 삶이란 세상을 공유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곧 같은 빵과 같은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이다. 나눔이 깨어지는 곳에, 그리고 주어진 자연의 선물이 나누어지지 않는 곳에 고통이 시작된다.



4 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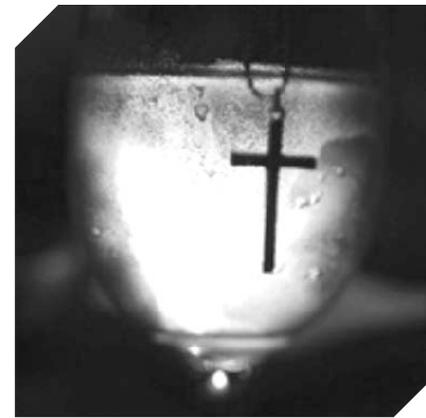
◆ 회개의 길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회개의 은총으로 초대한다. 회개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살던 사람이 자기 죄를 뒤우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교회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라고 가르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435항).

◆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는 말로 공생활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루카 5, 32) 오신 것이었다.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예수님의 호소는 외적행위가 아니라, 내적행위인 마음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결국 예수님의 전 생애 사명은 하나님의 참 모습을 계시하고 그분의 자비를 전하며 사람들을 아버지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사람들의 회개에 있었다.

◆ 성사와 회개



교회 가르침은 세례·고해·성체성사를 회개와의 내적 관련성 안에서 설명한다.

- ‘세례’는 회개의 공식적 표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죄의 용서를 가져다준다.
- 세례를 받은 후, 중대한 죄를 범할 경우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성사가 ‘고해성사’이다. 회개는 고해성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한다.

- 이 성사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화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와 친교인 ‘성체성사’에 초대 받는다. 이 성사는 일상적인 회개와 참회의 원천이자 양식이다.





사순 제 2주간 판공 문제

1. 고통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견해가 아닌 것은?

- ① 악의 체험 ② 죄의 결과 ③ 선의 결핍 ④ 무지(無知)

2.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삶의 테두리에서 배제시켜 고통 받으시게 한다.
- ② 무죄한 사람의 고통은 인간의 지력으로 완전히 볼 수 없는 하나의 신비로서 제시된다.
- ③ 하느님은 상선벌악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므로 죄에 대한 윤리적 상응으로 벌이 따른다.
- ④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이다.

3. ‘의인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구약성경 상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인가?

- ① 이사야 ② 아모스 ③ 욥 ④ 룻

4.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쓰시오.

□□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듣게 되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따라서 신앙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과 관계를 가진다면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련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고통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 ②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 대한 순종으로 몸소 고통을 받으셨다.
- ③ 신약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이다.
- ④ 복음서에서는 현세 생활에서 갖가지 고통으로 시련당하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일컫는다.

6. 오늘날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견해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세상은 모든 인간의 삶이 함께 얽혀 있으므로 바로 세상 안에 고통이 있다.
- ② 인간 사이의 나눔이 깨어지는 곳에서부터 고통은 시작된다.
- ③ 자연의 선물이 나누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고통이 비롯된다.
- ④ 고통은 인간 죄의 정도에 따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7.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명시되는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을 찾아 쓰시오(1435항).
()

8. 예수님께서 회개와 관련하여 직접 하신 신약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 ①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루카 5, 32).
- ②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
- ③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마태 3, 2)
- ④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 8).

9. 교회가 회개와의 내적 관련성 안에서 설명하는 성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세례성사 ② 고해성사
- ③ 병자성사 ④ 성체성사

10. 교회의 전례 생활에서 끊임없는 회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전례력의 적절한 시기에 공통으로 회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이다. 교회의 전례시기 중 신자들이 공통으로 회개하는 시기를 쓰시오(2가지).
(,)

보속과 자선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루카 13, 9)

사순 제 3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제가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자들의 죄에 대한 보속과 회개의 행위로 자선을 가르칩니다. 자선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바를, 부족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선에는 어느 정도의 자기희생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 편집자 주 -

5 보속

◆ 보속의 필요성

우리가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해성사로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 죄의 벌까지도 다 용서 받는 것은 아니고, 지옥 벌만 용서받을 뿐 잠벌은 남아 있게 된다.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해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 벌이란 뜻이며, 이는 인간 스스로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해야 한다”(1459항).

◆ 보속의 행위

기도 · 금식 · 자선은 전통적인 보속행위 유형이며, 보속행위는 다음의 주요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보속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인격적 약속이다. **둘째**, 보속행위는 용서받은 죄인이 자발적인 정신적 · 육체적 극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셋째**, 보속행위는 죄가 남긴 상처, 통회에 있어서 사랑의 부족 등으로 사죄 후에도 신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준다 (〈화해와 참회〉 31항).

6 자선

◆ 자선의 척도

오늘날 윤리 신학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위한 자선의 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한다.

첫째, 이웃이 극도의 필요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큰 불편이나 물질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중대한 필요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보통의 희생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보통의 필요에 처한 사람에게는 보통의 애덕 행위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그러한 것은 아니며, 각자의 재산 능력에 따라 다르다.

◆ 자선의 현대적 의미

현대 세계에서 자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난이 물질적 궁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궁핍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식(금식 · 금육)

단식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자기를 이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단식 실천을 권위 있게 요구했다(전례헌장 110항). 즉 파스카적 단식 계명을 공포하면서 사순절의 시작(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성토요일에 실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교회법(1249~1253조)에서는 참회와 고행의 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은 보편교회에서 참회와 고행을 실천하는 날이다. 금육재를 지킬 날은 모든 금요일이며, 금요일이 대축일이면 금육재가 중지된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킬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이다. 한편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의 시작까지 지켜야 한다.

교무금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과 교무금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희생제물이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신자들이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탁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16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무금은 교구 발전과 유지, 본당 사목과 복음화 사업,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기자선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수입’은 가장의 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총수입’을 뜻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십일분의 일**’은 교무금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한달의 30일 중 적어도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라는 말은 자기 수입 중에 남은 것을 계산하여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수입에서 먼저 떼어 바치라는 것이다.





사순 제 3주간 판공 문제

1. 신자들의 '죄에 대한 보속'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세례 전 범한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받은 보속행위로 치유 된다.
- ②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는 보속으로 없어진다.
- ③ 보속이란 죄에 대한 지옥 벌을 용서 받기 위한 방법이다.
- ④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용서 받지만, 잠벌은 보속을 통해 갚아야 한다.

2. 다음 중 교회의 전통적인 보속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기도 ② 묵상 ③ 금식 ④ 자선

3. 보속의 행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보속행위는 죄가 남긴 상처 등 사죄 후에도 신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준다.
- ② 보속행위는 용서받은 죄인이 자발적인 정신적, 육체적 극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 ③ 보속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약속이다.
- ④ 보속행위는 고해사제가 정해진 기도문만을 충실히 수행하면 성립된다.

4.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고르시오.

□□이란 영원한 벌에 대해 일시적인 벌 혹은 □□벌이란 뜻이며, 이는 인간 스스로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연옥 - 잠벌 - 보속 ② 보속 - 잠벌 - 연옥
- ③ 잠벌 - 보속 - 연옥 ④ 잠벌 - 연옥 - 보속

5. 윤리 신학에서 구분하는 자선의 척도 세 가지를 모두 쓰시오.

첫째, _____
 둘째, _____
 셋째, _____

6. 그리스도교적 '자선'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그리스도교 자선의 현대적인 의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다.
- ② 자선이란 이웃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자 구체적인 실천이다.
- ③ 그리스도교에서의 자선은 기도, 금식과 함께 보속의 주요한 한 형태이다.
- ④ 자선행위는 물질적인 궁핍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7. 단식(금식, 금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 ① 단식이란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자기를 이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 ② 금식은 매주 금요일, 만 18세부터 60세의 시작까지 지켜야 한다.
- ③ 금육은 매년 사순절의 시작(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켜야 한다.
- ④ 금육은 만 14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8. 교무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과 교무금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 ② 교무금은 교구 및 본당의 복음화 사업과 시설확충 및 자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 ③ 가정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오십분의 일'은 교무금을 바쳐야 한다.
- ④ 교무금은 가정의 총수입 중 일부가 아니라 가정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치는 것이다.

9~10. 가톨릭 신자들의 지켜야 할 6대 의무를 쓰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 ⑥ _____

화해와 용서



“잃었다가 되찾았다!”

(루카 15, 32)

용서와 화해의 의미는 사순 제4주일 복음인 ‘잃었던 아들의 비유’(루카 15, 11-32)에서 잘 나타납니다. 축제를 벌여 돌아온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해는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 편집자 주 -

7 화 해

◆ 성경에서의 화해

① **구약** : 인간의 입장에서 화해란,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며,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가 되기에, 일방적이 아닌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그 화해의 주도권을 하느님이 쥐고 계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을 택하셨다. 구약에서 계약이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탈출 19, 4-6 참조).

② **신약** :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과 인간의 복원된 관계를 표현할 때 ‘화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로마 5, 8-11).

◆ 화해를 위한 교회사명

하느님 · 자기자신 · 이웃 · 창조계 전체와 화해를 조성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며,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한에서만 화해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참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끊임없는 회개를 동반한 화해에 도달해야 하며, 다음의 몇 가지 화해의 길을 제시한다.

우선 기쁜 소식인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 그리고 ‘칠성사’(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신비 안에서, 사제의 ‘강론과 설교’를 통해, 끝으로 모든 신자들의 ‘예언적 사명’을 통해 제시된다.

8 화해의 성사 : 고해성사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고해성사를, 하느님의 자비로운 초대와 죄인의 회개로의 만남과 대화를 강조하여 ‘화해의 성사’(Sacramentum reconciliationis)라고 칭했다. 이는 한국교회 안에서, 사제 앞에서 죄의 고백을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된 ‘고백 성사’라는 용어를 ‘고해성사’로 바꾸어 부르는 계기를 마련했다.

◆ 고해성사 제정의 기원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한 권한(Potestas Clavorum)을 사도들에게 부여하셨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사도들은 이 권한을 그들의 후계자(교황과 주교, 사제)들에게 전수하였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 23 ; 마태 18, 18).

◆ 고해성사의 구성(과정)

고해성사는 고해자의 ‘통회 · 고백 · 보속’ 그리고 사제의 ‘사죄’로 구성된다.

① **통회** : 고해성사 「새 예식서」는, 통회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범한 죄를 아파함과 저주”라고 정의하면서 “참회의 진실성은 마음의 통회에 달려 있다”고 덧붙인다. 통회에 있어서 결심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의지의 단호한 행위로서 어떤 죄도 이 결심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② **고백** : 성사적 고백이란, 사죄를 얻기 위해 합법적인 사죄권이 있는 사제에게 하는 죄의 고백이다. 고해자는 양심성찰로써 기억되는 세례 후 범하였으며, 아직 사제로부터 직접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각각의 대죄들을 고백해야 한다. 의도적인 무효 고백(모고해)은 무효로서 독성죄(瀆聖罪)에 속한다. 그리고 고백은 홀로 사제 앞에서 비밀리에 해야 하며, 서신이나 인편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통역을 통한 고백은 남용과 악한 표양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금하지 않는다.

③ **보속** : 고해자는 고해 사제가 명한 정당한 보속을 수락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속을 망각했을 경우에는 의무가 중지된다. 보속을 다시 받기 위해 이미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죄를 다시 고백할 의무는 없다.

④ **사죄** : 사죄 행위는 재치권을 가진 사제가 행한다. 재치권이란 근본적으로 신품권에 예속되는 것으로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제에게 주는 권한이다.

교회법은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959조)고 명시한다.



성주간 - 파스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요한 8, 11)

교회전례는 전통적으로 사순 제 5주일 복음과 독서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파스카’(새로운 삶, 부활)를 희망합니다. 요한복음(8, 1-11)에서 예수님은, 죽을 처지에 놓인 ‘간음한 여인’을 자비로이 속량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11절). 이 순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죄에서 용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 신비’를 체험합니다. 죄 많은 우리 각자도 얼마 남지 않은 사순시기 동안 ‘새로운 삶’을 결심하며, 은총의 파스카를 맞이합니다. - 편집자 주 -

9 파스카 삼일

파스카 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기리는 3일간의 기간으로 전례주년의 정점을 이룬다. 그 시기는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부터 시작하여 예수부활대축일까지이다.

◆ 파스카 목요일

성주간의 종점이기도 한 파스카 목요일은 ‘주님만찬미사’로 파스카 삼일의 시작을 알린다. 이날 미사의 말씀전례 끝에는 발씻김 예식(세족례)을 하는데, 성찬례 제정과 형제적 사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성찬례를 마친 뒤에는 준비된 장소인 ‘수난감실’로 성체를 옮기는데, 이는 신자들이 성체를 공경하고 조배를 하며 성찬례가 없는 파스카 금요일 말씀 전례 때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이다. 미사에서 사제는 흰색 제의를 입는다.

◆ 파스카 금요일

미사를 거행하지 않는 이 날 전례는, 제1부 말씀의 전례, 제2부 십자가 경배예식, 제3부 영성체예식으로 구성된다. 사제는 죽음의 색인 검은색 대신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는다. 특히 이날 전례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원천인 십자가 제사를 고마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날이다.

◆ 파스카 토요일

교회는 이날 시간전례(성무일도)를 위해서만 모임을 가질 뿐, 다른 전례는 거행하지 않는다. 즉, 파스카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저승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부활의 실현을 희망하는 날이다.

◆ 부활성야

1970년의 새 <미사경본>은 부활성야가 파스카 삼일의 정점이자 ‘모든 전야제의 어머니’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밤이 시작된 다음에 예식을 시작하고 주일 새벽 전에 마치도록 규정되었다. 부활성야 미사전례는 총4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부활초를 켜는 예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제2부는 신·구약성경의 구원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의 전례로 구성되며, 제3부는 세례예식 혹은 세례 갱신식이 거행된다. 끝으로 제4부 성찬례로 본 예식이 마감된다.

◆ 예수부활대축일

파스카 삼일의 마지막 날이자 부활 시기의 첫날을 장식하는 이날에는, 원래 부활 성야가 새벽녘에 마치는 까닭에 별도의 전례를 거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일에도 전례를 거행하기 시작한 것은 부활성야를 자정 전에 마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부터였다. 특히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경축하며, 가족과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웃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



10 한마음 운동



☞ 한마음운동은

1989년 세계성체대회가 약속한 지속적인 나눔 운동입니다

지난 1989년 한국천주교회는 세계성체대회의 준비과정으로 한마음한몸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성체대회를 마친 후 1991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각 교구별로 한마음한몸운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교구만이 한마음한몸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수원교구에서는 지난해 1월 10일 제 130차 사제평의회를 통해 천주교 수원교구 한마음운동본부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12월 8일 한마음운동본부의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 한마음운동은 교회와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한마음운동은 수원교구 신자들만의 나눔 운동이 아닌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나눔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발은 교회에 한발은 사회에 두고 교회와 사회가





성주간 - 파스카

함께 실천하는 나눔 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한마음운동은 성체성사의 온전한 실천입니다.

한마음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슬픔과 고통, 아픔에 함께하여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신명나는 세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메시아를 뵈올 수 있는 것입니다.

- ◆ 월드비전은 개신교가 만들어 사회로 전파시킨 자선기구입니다.
- '한마음'은 수원교구가 만들어서 사회로 전파시킬 자선운동단체입니다.

☞ 한마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합니다.

틈새구호대상 총조사

정부에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분의 지원이 집중되어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소년, 소녀가장과 자식이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어 어렵게 지내는 독거 노인 등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찾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돕겠습니다.

한마음은행

단순한 기금 후원 또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 예술적 재능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건강한 신체, 기술, 봉사할 마음 등이 있는 분 누구라도 은행에 등록할 경우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연계해주는 운동입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운동

모토는 "적선은 저지 근성만 키운다"를 모토로 이자는 받지 않지만 원금은 꼭 갚으라는 "신용대출"의 방식입니다. 창업할 아이템은 있지만 창업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에 돈을 빌려줘 창업을 유도하여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운동입니다. 생필품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으로는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이 자립하여 생활능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자립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희귀병어린이돕기운동	빈곤가정의 희귀병 어린이를 선정하고 지원
제대혈조혈모세포나눔운동	백혈병 치료를 위해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제대혈기증
행복바구니	중고물품, 새물품을 기증받아 판매수익금으로 자선활동
희망을 만드는 문화마당	종교시설 이용을 통한 문화예술공연으로 기금마련
한마음벚치달기운동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회공헌운동
제3세계 국가 지원운동	제3세계 국가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사업 및 원조사업
북한지원 한겨레 나눔 운동	북한주민 지원사업과 새터민 지원 사업

☞ 한마음운동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마음ARS

060-700-1566 한마음ARS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한마음ARS카드를 직장동료, 이웃 주민, 친구등 특히 비신자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http://thehanmaum.or.kr> | 원동화 2,000원

ARS 한통으로 가족이 됩니다
060-700-1566
 3일 이내에 이웃에게 카드를 전해주세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저소득층 지원을 시작으로, 희귀병 어린이돕기, 이주노동자 지원, 국제기아구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기부&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 계좌이체

국민은행 877001-01-300452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CMS : 한마음 홈페이지에 CMS 신청을 하시면 매달 자동이체 됩니다.

- 지로 : 지로를 원하시는 분은 한마음운동본부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한마음운동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TEL: 031-268-3907 / FAX: 031-268-1904





성주간 - 파스카 문제

1. 사순시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 ① 성 요셉 대축일 ② 성 목요일
- ③ 재의 수요일 ④ 주님수난 성지주일

2. 파스카 삼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파스카 삼일의 시작은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로 시작한다.
- ② 파스카 목요일에는 빛의 예식 후 십자가 경배 예식이 있다.
- ③ 파스카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후에는 수난감실로 성체를 옮겨 조배 한다.
- ④ 파스카 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식 후에는 세족례 예식이 있다.

3. 파스카 삼일 내에 이루어지는 전례와 예식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성유 축성 미사 ② 주님 만찬 미사
- ③ 발 씻김 예식(세족례) ④ 십자가 경배 예식

4. 파스카 삼일의 정점인 부활성야 전례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빛의 예식 ② 부활찬송
- ③ 세례식 또는 세례 갱신식 ④ 구유경배

5. 예수부활대축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예수부활대축일은 춘분 이후 첫 만월이 지난 첫 주일로 정해진다.
- ② 예수부활대축일은 가톨릭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축일이다.
- ③ 예수부활대축일에 사제는 기쁨과 환희의 흰색 제의를 입는다.
- ④ 부활성야미사는 원래 성토요일 자정이 넘기 전에 바쳐졌다.

6. 한마음운동의 시작은 무슨대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 ① 성령대회 ② 성바로대회
- ③ 성베드로대회 ④ 세계성체대회

7. 한마음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 ① 틈새구호대상총조사 ② 제대혈조혈모세포나눔운동
- ③ 1%기증 ④ 마이크로크레딧운동

8. 한마음운동본부의 ARS 번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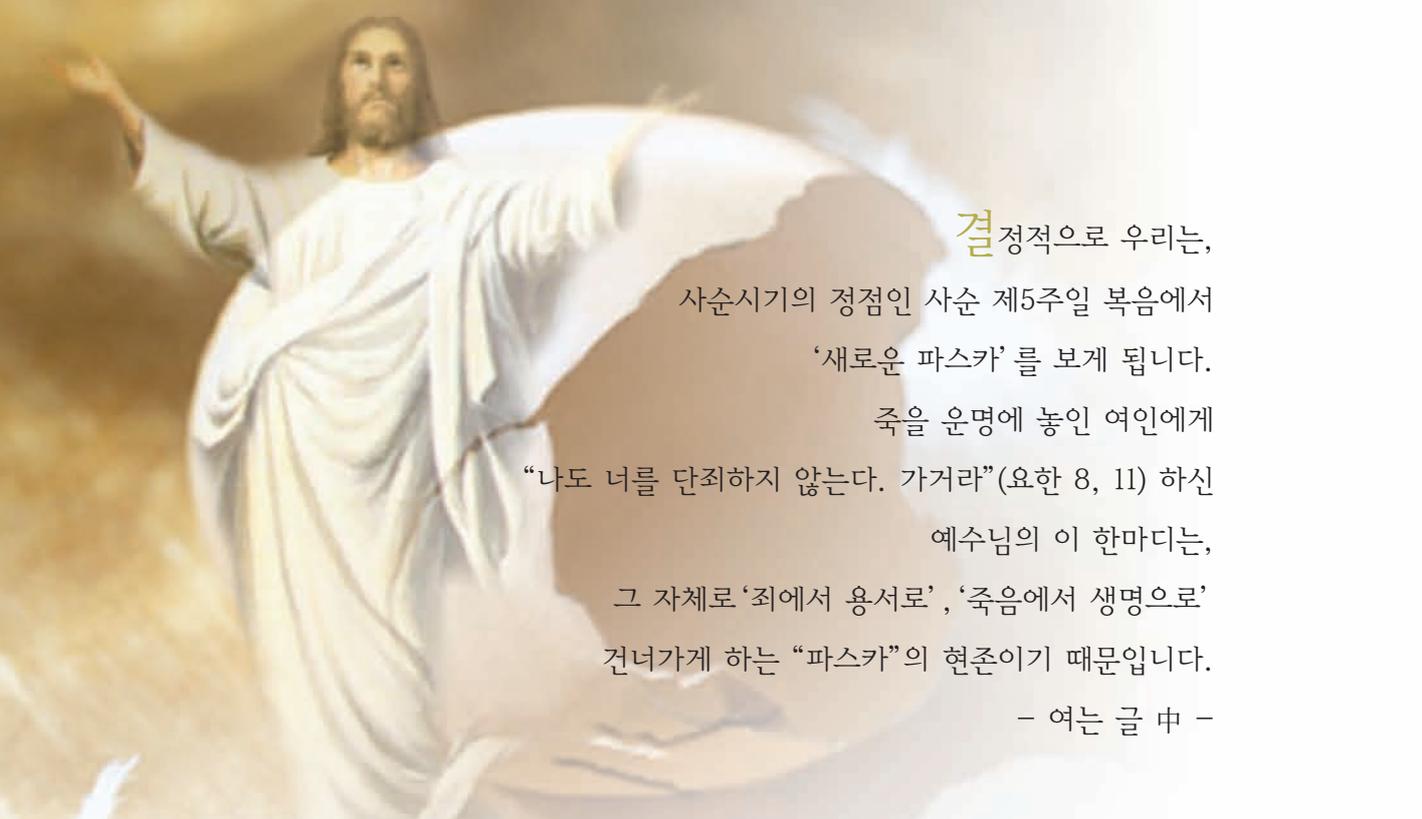
- ① 060-700-1234 ② 060-700-5588
- ③ 060-700-1566 ④ 060-700-5678

9. 한마음운동은 []의 온전한 실천입니다. []안에 들어갈 단어는?

- ① 사랑 ② 성체성사
- ③ 복음말씀 ④ 나눔

10.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의 바른 설명은?

- ① 자신의 재능을 예치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운동
- ②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을 상대로 무담보/무이자 대출로 자활을 돕는 운동
- ③ 출산시 산모의 탯줄에서 나오는 제대혈을 기증하는 운동
- ④ 매주 ARS를 찍어주는 운동



결정적으로 우리는,
 사순시기의 정점인 사순 제5주일 복음에서
 ‘새로운 파스카’ 를 보게 됩니다.
 죽을 운명에 놓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요한 8, 11) 하신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 자체로 ‘죄에서 용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파스카”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 여는 글 中 -

성명(세례명)

전 화 번 호

본 당

구 역 · 반

점 수 :

2007년 사순 판공 문제집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가거라.”

발 행 일 : 2007년 2월 7일

엮 은 이 : 수원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부

발 행 인 : 최 덕 기

편 집 인 : 문 회 중

발 행 처 :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전 화 : 031-244-5035 / FAX : 031-244-7224

E-mail : evan@casuwon.or.kr / Homepage : www.casuwon.or.kr

디자인·인쇄 : (주) 유림문화사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전 화 : 031-243-1880 / FAX : 031-248-4842

E-mail : swyul@chol.com / Homepage : www.iyurim.com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람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